

---

#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

## 1. 조사목적

-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예산낭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의혹을 규명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낭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3. 조사기간 : 2018. 12. 21. ~ 2019. 2. 28.

## 4.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대상 범위

- 조사대상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조사대상 범위
  - 행사·축제 예산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의전당 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유아숲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 큰애기상점가를 비롯한 원도심 일원 공사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항
- 학술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조성 및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5. 조사반 편성

반 별	조 사 위 원	사 무 보 조	비고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원 장 : 김지근</li> <li>○ 부위원장 : 강혜경</li> <li>○ 위 원 : 이명녀 문희성 안영호</li> </ul>	전문위원 최인숙 행정 7급 박미숙 속기 8급 김주은 속기 9급 신채은	

## 6. 조사경과 및 활동사항

구 분	일 시	주 요 안 건(내용)	장 소
제211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2. 12.(수)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의결</li> <li>○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5명)</li> </ul>	본회의장
조사특위 제1차 회의	2018. 12. 14.(금) 13:30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특위 회의실
위원 간담회	2018. 12. 17.(월) 14:00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 협의	위원장실
조사특위 제2차 회의	2018. 12. 19.(수) 14:00	○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심의	특위 회의실

구 분	일 시	주 요 안 건(내용)	장 소
제211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 12. 21.(금) 11:00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	본회의장
위원 간담회	2019. 1. 7.(월) 11:00	○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작성 협의	위원장실
조사특위 제3차 회의	2019. 1. 8.(화) 11:00	○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결	특위 회의실
위원 간담회	2019. 1. 14.(월) 11:00	○ 조사특위 향후 일정 협의 등	위원장실
위원 간담회	2019. 1. 23.(수) 11:00	○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관련 협의	위원장실
조사특위 제4차 회의	2019. 1. 29.(화) 15:00	○ 서류 제출 추가 요구의 건 의결	특위 회의실
위원 간담회	2019. 2. 8.(금) 11:00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자 협의	위원장실
위원 간담회	2019. 2. 11.(월) 11:00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자 협의	위원장실
조사특위 제5차 회의	2019. 2. 14.(목) 16:30	○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	특위 회의실
위원 간담회	2019. 2. 18.(월) 10:00	○ 증인 출석대상자 변경 및 조사방향 협의 등	위원장실
조사특위 제6차 회의	2019. 2. 20.(수) 10:00	○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의결	특위 회의실
조사특위 제7차 회의	2019. 2. 21.(목) 15:30	○ 증인 출석 추가 요구건 의결	특위 회의실
조사특위 제8차 회의	2019. 2. 25.(월) 10:00	○ 현장 확인(검증) -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 문화의 전당 - 큰애기상점가 및 구)학성여관 ○ 행정사무조사 - 문화의전당 물품 구입 - 유아숲 교육운영	특위 회의실

구 분	일 시	주 요 안 건(내용)	장 소
조사특위 제9차 회의	2019. 2. 26.(화) 10:00	○ 행정사무조사 - 울산마두회축제	특위 회의실
조사특위 제10차 회의	2019. 2. 27.(수) 10:00	○ 행정사무조사 - 학술 용역 -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 - 울산큰애기상점가 및 구)학성여관	특위 회의실
조사특위 제11차 회의	2019. 2. 28.(목) 10:00	○ 행정사무조사 - 경로식당 운영 -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특위 회의실
의원 간담회	2019. 3. 12. ~ 4. 22.(수시)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등	위원장실
조사특위 제12차 회의	2019. 4. 23.(화) 17:00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	특위 회의실

##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

○ 출석 연인원 : 48명

○ 일자별 출석 현황

출석일시	사업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8차 특위 2019. 2. 25.(월) 13:00	문화의전당 물품구입	행정자치과	비서실장	민병률	증인
		청렴감사관	민원갈등 관리계장	박선영	"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	"
		문화의전당	경영관리계 장	양경숙	"

출석일시	사업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8차 특위 2019. 2. 25.(월) 14:00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유아숲 교육운영	-	전)공원녹지 과장	신훈기	증인
		약사동	동장	최진호	〃
		공원녹지과	과장	김혜경	〃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
		울산숲자연학교 협동조합	대표	강운기	〃
		〃	원장	이은주	〃
		〃	숲해설가	고미경	〃
		〃	숲해설가	손외자	〃
		〃	숲해설가	장이식	〃
		〃	숲해설가	김선애	〃
제9차 특위 2019. 2. 26.(화) 10:00	울산마두회 축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	노선숙	〃
		행정자치과	비서실장	민병률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장	김우찬	〃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김성연	〃
제10차 특위 2019. 2. 27.(수) 10:00	학술용역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계화	〃
		일자리창출실	도시재생 정책계장	이창업	〃
제10차 특위 2019. 2. 27.(수) 13:30	학성 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	-	전)녹지공원 과장	신훈기	〃
		약사동	동장	최진호	〃
		공원녹지과	과장	김혜경	〃
		회계정보과	재무계장	박용순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계장	김형철	〃

출석일시	사업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10차 특위 2019. 2. 27.(수) 15:00	울산큰애기 상점가 및 구)학성여 관	행정자치과	서기관	문명주	증인
		주민생활지원 과	과장	노선숙	〃
		환경미화과	과장	김선희	〃
		(주)디스페이스	대표	신수범	〃
		주강P&C	대표	송성준	〃
		구)학성여관	건물주	정현무	〃
		나인건축	인테리어	박설민	참고인
제11차 특위 2019. 2. 28.(금) 10:00	경로식당 운영	복지경제국	국장	김영성	증인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규협	〃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계 장	박기숙	〃
		경제산업과	지역경제계 장	류인숙	〃
		건설과	건설행정계 장	홍정식	〃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고동렬	〃
		중구여성자원 봉사회	회장	김금년	〃
제11차 특위 2019. 2. 28.(금) 14:00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	전)건설도시 국장	서인보	〃
		안전도시국	국장	장길원	〃
		-	전)도시과장	최황림	〃
		종합건설본부	시설6급	이동수	〃
		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	왕삼천	〃
		시 도시재생과	시설6급	손화정	〃
		-	전)총무과장	김준호	〃
		대주종합건설	차장	공재욱	〃
		유림조경(주)	대표	오석진	〃

## 8.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 〈문화의전당 물품 구입〉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구입으로 예산낭비</p> <p>- 문화의전당 소리마루는 음악감상실 설치명목으로 2016년 12월에 구입한 2,190만원의 캔터베리스피커 등 최고급3인용 가죽쇼파, 최고급 1인용 가죽 안락의자, 최고급 인테리어 등 7,800만원 상당의 장비와 최고급 부대시설을 갖추었으나, 지난 2년간 음악 관련 전문강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설치목적이 불분명하여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임</p> <p>- 또한, 소리마루 용도와 전혀 상관없는 양주잔, 와인, 와인잔, 와인오프너 등은 관련부서에서 구입한 사실 없을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출처가 불명확함</p>	<p>○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사례임. 소리마루 공간 활용방안 강구하기 바람</p> <p>○ 양주잔, 와인, 와인잔, 와인오프너 등 소리마루 물품 구입에 대한 출처, 예산낭비 및 사용자에 대해 감사 권고함</p>	
시정	<p>○ 공유재산(문화의전당 소리마루) 사적 목적으로 장기간 불법 사용</p> <p>- 소리마루 이용대장을 보면, 2015년 5회, 2016년 5회, 2017년 7회 등에 걸쳐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외부인 및 공무원은 없다고 하나, 2015년 1월 ~ 2018년 5월까지 지문등록자 및 사용시간대 등 출입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 문화의전당 소속 직원 이외의 자가 백여차례 출입한 기록이 지문등록시스템에서 확인됨</p>	<p>○ 담당 직원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지침 숙지 및 일반 사무실 보안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p>- 박○○ 전구청장, 비서진, 일부 전·현직 의원 등은 공식적 절차없이 출입지문등록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여, 주로 문화의전당 근무자가 없는 주말 야간과 평일 야간, 심야시간에 집단적, 개인적으로 백여차례 출입한 기록이 있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를 위반함</p>	<p>○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의전당 소리마루에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사용 수익한 자들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권고함</p>	

##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유아숲 교육운영〉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처리	<p><u>&lt;2017년 숲해설 사업&gt;</u></p> <p>○ 구의원 배우자 수의계약 부적정</p> <p>- 2017년 3월 숲해설가 위탁용역 관련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의원의 배우자 강○○가 대표로 있던 울산숲 자연학교 협동조합에 입화산 숲해설사업 19,910천원을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체결</p> <p>- 2017년 3월 입화산 숲해설 사업 수의계약 당시, 울산숲 자연학교협동조합(대표 강○○)의 계약서류에 이윤(1,600천원)이 명시되어 있고, 영리목적임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로 규정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을 체결을 한 사실이 있음</p>	<p>○ 각종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이 투명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부서에서는 관계기관 공문시행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등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함</p>	
시정	<p>○ 위탁 운영 허위실적보고</p> <p>- 2017년 숲해설가 위탁 용역 사업에 참여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숲체험 활동 현황과 해당 숲해설가 위탁 용역 사업의 운영 실적과 참여회수, 인원 등이 상이함</p>	<p>○ 사업실적 증빙서류를 보완 조치하고,</p> <p>○ 증빙서류 미첨부시 허위 실적 보고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보조금 정산 미 실시 및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li> <li>- 2017년 숲해설가 위탁용역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는 집행잔액 3,960천원을 12개월 동안 반납하지 않았음</li> <li>- 담당 부서에서는 2019. 1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 이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과지급된 인건비 4,764천원을 사업종료 12개월 후 환수 처리함</li> </ul> <p>○ 민간위탁금 집행을 위한 전용통장(계좌) 미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별도 개설하지 않고 위탁금을 혼용 사용하고 정산(이자발생금 포함)을 소홀히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을 1년 이상 지연 처리에 대한 감사 권고함</li> <li>○ 미반납 이자 회수 하여 반납조치 바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바람</li> </ul>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b>&lt;2018년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gt;</b></p> <p>○ 구의원 배우자 수의계약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 전의원 의 배우자 울산숲자연학교협동 조합 대표 강○○은 2018년 3월 울산광역시 중구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사업비 264,000천원)에 공모하여 선정된 후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li> <li>- 2018년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 위탁 공모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사업제안서에 사업비의 55%정도만 집행하고제대로 정산도 하지 않았던 2017년숲해설가 위탁용역 사업을 경력사항으로 허위 기재</li> <li>- 2018년 3월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유아숲 해설사업에 대한 수의 계약 당시, 울산숲자연학교 협동조합(대표 강○○)의 수의계약서류에 이윤(4,890천원)이 명시되어 있고 영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li> </ul>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으나 부적격자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회피) 규정 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부서에서는 관계기관 공문 시행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등 각종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부적정 대상자와 특혜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li> <li>○ 또한, 사업자 제안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바람</li> </ul>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서 허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숲자연학교협동조합이 2017년 숲해설가 위탁운영 사업, 2018년 유아숲 체험원 운영사업에 2회 공모 선정되었으나,</li> <li>- 사업제안서의 울산숲자연학교협동조합의 인력현황에는 교육공무원인 대표 강○○의 자녀 강○○이 부장으로 등재되어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숲자연학교협동 조합의 전체 비위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 하고,</li> <li>○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조례」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 따라 5년간 지방보조금사업 참여 제한 조치 바람</li> </ul>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숲체험비 부당징수 후 착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은 위탁 운영 보조금으로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체험비 440천원을 ○○유치원 등 최소 5곳에서 부당하게 징수하고 개인 통장으로 이체 착복</li> </ul> </li> <li>○ 보조금 용도 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12. 24. ○○○뷔페에서 4인 식대 132천원을 3회에 걸쳐 회의비(식대)로 총 396천원을 결제후, 중식권(상품권)으로 돌려받음</li> <li>- 2018. 12. 24. ○○상사에서 300천원 문구류를 구입하면서 1,074천원 결제하였고, 사업종료 후 반납하지 않고 704천원을 ○○상사에 잔액으로 보관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징수 및 집행된 금액 환수조치 후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권고함</li> <li>○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조례」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5년간 지방보조금사업 참여 제한 조치 바람</li> </ul>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보조금 정산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 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원칙적으로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li> <li>- 2018년 유아숲 교육운영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 미첨부</li> <li>- 2018.10.17. 도마 구입 5,850천원</li> <li>- 2018. 6.18. 단체복 구입 3,600천원</li> </ul>	<p>○ 대금결제시 청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등 보완 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증빙서류 첨부 바람</p> <p>○ 향후 보조금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탁자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기 바람</p>	
시정	<p>○ 보조금 용도 외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유아숲해설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대표 가족(강○○ 대표, 배우자 김○○ 전 의원, 자녀 강○○)에게 지급 근거도 없이 각 100천원을 부당지출</li> </ul>	<p>○ 대표이사 포함 대표 가족에게 홍보비로 부당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바람</p>	
시정	<p>○ 숲해설사 허위근무 및 인건비 부정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 대표의 자녀인 강○○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안전일지가 허위 작성되어 있어 출근부에 대한 신빙성이 없음</li> <li>- 이○○은 2018년 5월 출근부에는 5. 12, 5. 26일만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인건비는 1개월치를 정상적으로 지급</li> </ul>	<p>○ 부당 지급된 인건비 전액 환수 조치 바람</p>	

## 〈울산마두희축제〉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수익금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큰줄당기기 참가비 수입금과 국제친선클럽(먹거리장터 대행업체) 장소대여료 수입금 28,692천원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나, 협찬금으로 편성하여 회의식대, 해외연수 경비 등으로 부적정 사용</li> <li>- 2015년, 2017년 또한 수익금 부적정 사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수익금은 별도관리 조치하고,</li> <li>○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제2항 수익발생에 관한 사항 기준과 법령에 따라 부적정 사용 수익금은 환수 조치 바람</li> </ul>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하나, 2018년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일반위원 24명 중 약58%인 14명을 마두희축제대행사업 참여자로 임의로 계약체결</li> <li>- 2015년, 2016년, 2017년 지방계약법 미준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li> <li>○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위원들이 마두희 축제에 직접 대행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바람</li> </ul>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국내 출장 경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위원의 일본벤치마킹 국외출장에 대한 연수계획서, 출장자명단, 출장결과보고서 누락</li> <li>- 또한 ○○여행사에 경비를 11,040천원 계좌입금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미첨부</li> <li>- 2018. 4. 14. 충주라이트월드 및 당진기지시 줄다리기 출장에서 4명 출장 신청 후 불상의 1인을 임의로 동행시켜 출장여비를 부정지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출장에 대한 참석자, 출장 결과보고서 등 증빙 자료 보완 조치</li> <li>○ 대금 결제시 청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첨부 바람</li> <li>○ 종이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빙서를 첨부하기 바람</li> <li>○ 부정 지출된 여비 환수 조치 바람</li> </ul>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원 사무국장 겸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원 사무국과 마두희축제 추진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는 별개의 기관과 단체임</li> <li>- 지방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마두희 축제추진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사무국장을 겸직함으로 업무 경계 불명확</li> <li>- 동일한 업무시간 내에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사무국장으로 700만원의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은 부적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구문화원과 마두희 축제추진위원회(비영리 민간단체)는 별개의 기관과 단체로 업무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분리 운영바람</li> </ul>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부적정한 계약 체결로 과도한 위약금 지급</p> <p>-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두희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서 상 계약금액의 10%로 명시되어 있음</p> <p>- 2016년 태풍 “차바”로 취소된 주제공연을 계약한 A업체만 행사 취소시 계약서 제8조 3항에 위약금을 임의로 70%로 명시하여 2016. 11. 2. 1,050만원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지급</p> <p>- 거래일을 알 수 없는 종이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는 등 증빙서류 미비</p>	<p>○ 행사대행 계약시 관련 규정 준수 철저</p> <p>○ 종이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빙서류 첨부하기 바람</p> <p>○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조례」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처분하고, 부적정 집행액 환수 처리 바람</p>	
시정	<p>○ 상품권 950만원 사용처 불투명</p> <p>- 2015. 10. 16.과 2016. 11. 3. 시상금 명목으로 구입한 상품권 950만원에 대한 사용처 등 증빙 자료 부재</p> <p>○ 중국언론기자단 숙박비 447만원 사용처 불투명</p> <p>- 2018. 6. 20. ~ 6. 24. 공식 초청된 중국기자단은 3명임에도 ○○○호텔 숙박비를 48room에 대해 지출 후 숙박이용자 명단 및 증빙자료 미첨부</p>	<p>○ 부적정하게 지출된 상품권과 숙박비는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바람</p> <p>○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지도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특수관계업체 계약 체결</p> <p>- 2015, 2017, 2018년 중구 문화원 사무국장 ○○○ 예술단(대표 김○○) 3차례 4,450만원</p> <p>- 2017. 6. 8. 중구 문화원 사무국장 지인인 남 구 ○○아파트 소재 ○○디자인(대표 좌○○)에 추억의 거리 행사 관련 2,140만원</p> <p>○ 계약서와 집행내역 불일치</p> <p>- 2015. 11. 2. (1,300만원) ○○○ 예술단(대표 김○○) 계약서:1,600만원 출금: 1,600만원 재입 금: 300만원</p> <p>○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예산낭비</p> <p>- 2017. 3. 20. 장○○과 마두희 줄ուն반 수레제작 계약서(7조 3항)에 의하면 서비스기 간 2년(2018년 축제 마칠 때까지)임</p> <p>- 2018. 6. 28. ○○개발(대표 박○○)은 골재, 건설 기계도급 및 대여업체임에도 비전문 업체에 수레 30개 보수, 교체작업으 로 430만원을 지급하여 예산낭비</p>	<p>○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 조금 조례」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처분하고, 부적정 집 행액 환수 처리 바람</p> <p>○ 업체선정시 전문업체를 선 정하고 계약서 내용을 준수 하여 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하기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용도의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두희축제 예산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단체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 인건비 등) 지원 불가함에도,</li> <li>- 2015년 ~ 2018년 동안 2억1,753 만원의 예산을 상근직원 등 인건비로 부정사용 2015년 인건비 4,443만원 2016년 인건비(활동비) 5,450만원(태풍 차마로 행사 취소) 2017년 인건비(활동비) 4,740만원 2018년 인건비(활동비) 7,120만원</li> <li>- 2016년부터 인건비를 활동비 명목으로 명칭 변경</li> </ul>	<p>○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조례」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처분하고, 부적정 집행액 환수 처리 바람</p>	
시정	<p>○ 무자격 대행사업자 선정 및 불법 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마두희 소망등 행사를 A업체와 계약을 하여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A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A업체는 실제 참여하지 않았고, 소망등과 관련한 기술이 없는 조○○은 중구문화원 ○○○의 소망등 행사진행 권유를 받아 A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행사계약</li> <li>-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A업체에 행사진행비 4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조○○의 요청으로 A업체는 제3자 김○○에게 송금함</li> </ul>	<p>○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철저</p> <p>○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하기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공통 지적사항(2015년~2018년 마두회축제)</p> <p>1. 지방계약법령 위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다수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p> <p>2. 증빙서류 미비 - 2015년 마두회 소망등 체험행사 (4,000천원) 등 - 2017. 6. 9. 마두랑 시민퍼레이드 (14,500천원) 등 - 2018. 7. 12. 판아트 출판침대 (4,268천원) 등 정산서류 부적정</p> <p>3. 회의비 및 식대비 등 과다지출 회의록 누락 및 식대경비 과다 지출</p> <p>4. 카드사용이 아닌 계좌이체 다수 보조금은 카드사용이 원칙이나 일반 과세자 등 대부분 계좌이체 처리</p> <p>5.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및 부적정</p> <p>6. 관내 업체 이용률 저조 2015~2018년 4년간 마두회축제예산 약24억 중 중구 소재 업체 사용액이 약30%임</p>	<p>○ 대금 결제 시 미발행 세금계산서 보완조치 2015~2018년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기 바람</p> <p>○ 회의비용 지출시 회의록 및 증빙서류 보완 조치 하고 식대경비 준수</p> <p>○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카드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 철저</p> <p>○ 보조금 정산 책임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정 금액 환수조치 후 마두회축제추진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5년간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제한 하기 바람</p>	

## 〈학술용역〉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용역 몰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을 산광역시 문화재위원(용역수행당사)인 ○○○○대학교 실내건축과 이○○ 교수와 이○○ 겸임교수는 중구 문화관광과 발주 용역 9건 외 타 지자체 등이 발주한 18건 등 수행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용역을 수행함(한국연구재단 자료)</li> <li>- “중구 성정비 활용계획 학술용역”의 경우 참여계획을 요청하는 공문을 3개의 연구기관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학교는 강○○ 교수, ○○○○대학교는 이○○ 교수를 수신인으로 하여 처음부터 특정인을 대상으로 참여 의뢰하였음</li> <li>- 용역을 발주한 집행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회를 통한 용역업무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채 특정 용역진에게 용역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용역 부실을 초래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연구과제가 특정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li> <li>○ 학술용역 참여계획 공문 요청시 연구자 개인이 아닌 학술연구용역 기관으로 하기 바람</li>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부서에서는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계약하기 바람</li> </ul>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무단전재</p> <p>- “울산왜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학술 용역” 보고서 60~83쪽은 『서생포왜성 관광개발계획(2002)』의 29~60쪽 전체를 무단전재하고, 53~59쪽 역시 같은책 61~69쪽을 무단전재 하는 등 전체 41쪽을 통째로 무단전재함</p> <p>- 제출된 보고서 96~100쪽은 『학성 길에서 울산을 만나다(2012)』의 180~184쪽 전체를 무단전재, 107~118쪽은 같은 책 200~214쪽을 무단전재, 125~132쪽은 같은 책 215~226쪽 전체를 무단전재함</p> <p>따라서, 보고서 169페이지 중 38.5%에 달하는 65페이지를 다른 책에서 무단전재함(그림, 표 포함)</p>	<p>○ 부당하게 이중으로 착복한 용역비는 환수 조치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p> <p>○ 윤리의식이 결여된 용역진은 용역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기 바람</p> <p>○ 용역결과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기 바람</p>	
시정	<p>○ 자기표절</p> <p>- “중구 성정비 활용계획 수립 학술 용역(2014)” 보고서의 4쪽, 38~54쪽, 54~56쪽 일부, 159~185쪽, 187쪽 전체를 『울산왜성 종합정비 기본 계획 학술용역(2013)』의 3쪽 하단~ 4쪽, 11~27쪽, 43~44쪽, 135~161쪽 일부, 164쪽을 무단전재함</p> <p>:전체 48쪽을 통째로 무단전재(그림, 표 포함)</p>	<p>○ 부당하게 이중으로 착복한 용역비를 환수 조치하기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p>- 제출된 보고서 58~59쪽 두 번째 단락, 62~63쪽, 65~66쪽 첫 단락, 80~81쪽, 118쪽 하단, 119~121쪽을 『학성길에서 울산을 만나다(2012)』의 34~35쪽, 35~36쪽, 50~51쪽, 73~74쪽, 113쪽~115쪽, 106쪽, 108~112쪽에서 무단전재함(전체 12쪽)</p> <p>따라서, 보고서 201페이지 중 30%에 달하는 60페이지를 다른 책에서 무단전재함(그림, 표 포함)</p>		
시정	<p>○“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학술용역 (2017)” 보고서 5~6쪽, 8~10쪽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2008)』의 3~4쪽, 6~8쪽에서 주석없이 일부를 복제함</p>	<p>○「울산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평가를 철저히 하기 바람</p>	
시정	<p>○“중구 성정비 활용계획 수립 학술용역”의 경우 울산시의 특정감사에서 위법 부당 내용으로 시정조치 되었으나, 결과물에 반영시키지 않고 무단 전재한 그대로 보고서 제출함</p> <p>○“중구 성정비 활용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업 관련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되고 높은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무단 전재를 일삼는 등의 과업지시 불이행</p>	<p>○용역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p> <p>○학술연구용역 책임자의 연구윤리 준수여부, 전문성 검증 없이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이라는 지위만 신뢰함으로써 야기된 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함</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학술용역(2017)” 관련 제도 분석 등의 내용이 부실함</li> <li>○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u>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의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u> 이 보고 서는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2002년 확정 공고된 “2021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을 분석에 사용하였음. 연구용역을 진행할 당시 이미 2010년 8월에 확정 공고된 “202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과 2016년 2월에 확정 공고된 “203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이 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내용이 부실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후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함</li> </ul>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동문복원 고증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2016)”용역진들이 울산시 문화재 위원임에도 항공고도 제한 저촉으로 용역이 불발된다는 것도 인지 못함</li> <li>○“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북문복원 고증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2017)”은 역사적, 학술적 근거자료 부족으로 중단되어 예산 낭비 사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 용역수행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동일 연구진 중복 용역 발주 지양하기 바람</li> <li>○또한,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시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제7조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술용역의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li> </ul>	

##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계획 당시 주민들의 정서와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가토기요마사 동상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li> <li>○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및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설치반대 여론으로 결국 가토기요마사 청동조형물이 거의 완성되어 설치 직전 상태에서 설치를 철회하고, 다시 의병으로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함</li> <li>○ 동상 위치가 잘못되어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당초 계획했던 전체 조형물 중에 하나만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조형물 설치 목적 부합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li> </ul>	

## 〈울산큰애기 상점가〉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예산편성 부적정</p> <p>오래된 여관을 활용한 골목사업물 조성계획 사업의 일환인 청년쇼핑몰 리모델링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한 사업이지만 예산집행과정에서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이 아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타인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을 직접 진행한 예산편성의 위법사안 임</p> <p>○ 대상건물 선정의 부적정</p> <p>사업대상을 영빈장 여관, 안일장여관으로 선정(2016. 8. 8.)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재공모(2016. 10. 21.~10. 28.) 하였고, 이때 당시 원도십 일원의 사유건물 오브제파사드사업을 수주 중이었던 창원 소재 D업체 남○○실장은 <u>뉴목련장, 정오장 여관 2개를 2016. 8. 11.과 2016. 10. 4.에 각각 사들여 재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응모율이 낮고 위탁방법도 재검토하라는 구청장의 지시에 공모를 하지 않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여관건물이 아닌 김석주 신경정신과의원 건물을 대상으로 결정(2017. 1. 18.)</u></p>	<p>○ 사유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시행부터 예산유용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공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의 목적과 다른 건물을 대상지로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부적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특혜성 계약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청년 쇼핑몰 조성사업” 리모델링 시행업체를 조달시스템 (G2B) 및 중구청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 하여 모두 3개의 업체가 참여함. 이 업체들은 각각 리모델링 제안도서를 제출 하였으며, 그 제안서를 토대로 심사위원 들의 심사가 이루어짐(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입찰평가 10%)</p> <p>1. 세 개 업체 모두 기존 건물에 없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계획도서를 제출하고 그 도 서로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하였음  그러나 전기공사가 들어가는 대수선일 경우, 당해 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 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심사를 진행하고 D업체를 선정 함</p> <p>2. 대수선을 할 수 없는 업체의 도면을 토 대로 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보면 참여한 세 업체의 정량적 점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정성적 평가에서 큰 차이 를 나타냄  낙선한 두 업체의 점수는 80.78과 81.10 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며, 두 업체 보다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제안서를 제출했던 D업체는 92.06으로 선정되었 음(조사특위 증인 조사결과, D업체 대표 신○○은 용역계약업체선정 심의위원인 이○○, 오○○ 등과 지인 관계임이 밝혀 짐)</p>	<p>○ 부적정한 특정업체 특혜성 계약과 과도한 공사비용 산정에 대한 사법기관 수 사 의뢰를 권고함</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3. 결국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첨부되지 않은 D업체와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657백만원에 용역 계약 체결함</p> <p>4. 이 계약은 철거공사, 가설공사, 금속창호유리공사, 목공사, 미장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으로 발주함. 위법임</p> <p>5. 이 공사를 수주하면서 제출한 실시 도면 역시 건축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이 아닌 인테리어 도면임. 불법임</p> <p>6. 인테리어 실시 도면을 토대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해당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음을 발견했으나, 구청에서는 공사 중지를 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의 철거비용을 구청이 부담하였음. 심각한 특혜임</p> <p>○설계 변경을 통한 용역 금액 증액 공사 진행 중 수도관 교체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하여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수도관 교체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p> <p>이 단계에서 비로소 건축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으로 공사 진행함. 인허가 도면이 나와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소방도면을 비롯한 위생설비도면 등 일체의 건축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착공계를 낼 수 없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격요건을 갖춘 도면 작성함</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 공사 비용 과다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공사 금액: 7억 7천만원</li> <li>- 원청업체인 D업체는 중요공사 대부분을 J업체에 3억 6백만원에 하도급하고, J업체는 또다시 박○○에게 1억 8천만원에 하도급함</li> <li>- 박○○은 샷시, 철거,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함. 엘리베이터 기초공사도 담당</li> <li>- 결국 리모델링의 실질적인 공사 거의 대부분을 박○○이 1억 8천만원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사비용 7억 7천만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다한 공사비용을 책정한 것임</li> </ul>		
처리	<p>○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건물을 대수선 공사비 7억7천만원으로 D업체에 용역 계약으로 집행</li> <li>- 매해 운영 예산 83,820천원 소요</li> <li>- 입점업소 5개소로 수지분석한 결과 향후 임대계약 잔존기간 동안 451,970천원의 손해가 발생함</li> </ul>	<p>○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로 신중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 구)학성여관 오브제파사드 사업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건의	<p>○사업대상의 부적정성 근현대문화 이미지 상징화 사업으로 구)학성여관 입면 리모델링, 안내판 부착 등의 대상이었으나, “학성여관”을 거점건물 오브제파사드 사업에 포함시킴</p> <p>※ 오브제파사드 사업 : 중구 원도심 일원의 낡은 주요 건물 외벽을 예술적 오브제를 통한 입면(파사드) 리모델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공건물 5개소와 사유건물 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려고 했음</p> <p>○용역업자 선정의 불투명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학성여관은 당초 오브제 파사드 사업 대상이 아니었으나 임의로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D업체에게 이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적정함</li> <li>- 조사특위 조사기간 중 증인 심문결과, D업체 대표는 오브제 파사드사업 선정위원회의 위원들 중 일부와 이미 친분 관계에 있었음</li> </ul>	<p>○D업체가 이 공사를 맡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한 감사 권고함</p>	
건의	<p>○구)학성여관 특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건물 오브제 파사드사업은 계약당시 소유주와 구청이 각각 1:1의 매칭으로 비용을 부담기로 계약하고, 중앙길 166, 127번 건물과 문화의거리 39번 건물주에게 자부담금 총 142,760천원을 부과함(2016년 10월)</li> </ul>	<p>○구)학성여관 소유주에게만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 감사 권고함</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p>- 그러나, 구)학성여관 소유주에 관해서는 오브제 파사드 사업 사전동의 합의서가 아닌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사업 (학성여관 이미지 상징화·입면 리모델링) 참여동의서를 받은채 사유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그 비용 전부를 구청이 부담함</p>		
건의	<p>○ 타지역 업체 일감 몰아주기 D업체는 지역업체가 아니면서 중구 관급공사를 수주한 현황을 보면</p> <p>2015. 9.16. 오브제파사드(사유건물) 제작 등 532,000천원  2015.11.19. 젊음의거리 아케이드 배너 등 18,000천원  2015.12.10. 원도심 관광안내 제작 등 46,605천원  2015.12.24. 마두회 조형물 제작 270,000천원  2015.12.29. 울산종갓집 이야기로 조성 467,500천원  2016. 1.18. KT무대 백드롭 교체 9,300천원  2016. 1.18. 울산읍내 스토리텔링 소재자 17,919천원  2016. 3.23. 단장골북카페 메뉴판 및 액자 3,740천원  2016.10.20. 구정방침 액자 제작 구입 1,662천원  2016.10.27. 고북수길(고북수살롱) 관련 540,000천원  2016.11.21. 울산큰애기 프로젝트 관련 1,209,241천원  2016.12. 1. 민원안내시설 교체 16,650천원  2016.12.14. 생활문화센터 외부 간판 14,391천원  2017. 3.20. 단장골북카페 옆 벽면 정비 3,108천원  2017. 3.29. 큰애기시장 입구 주정차금지 안내판 5,643천원  2017. 4.28. 청사 서편 벽면 환경개선 14,391천원  2017. 6. 7. 청년쇼핑몰 조성 770,000천원  2017. 9. 4. 전통시장 홍보용 전단지 제작 7,638천원  2017.10.23. 1층 회의실 테이블세트 제작 4,987천원  2017.10.30. 큰애기시장 천정 디자인현수막 17,955천원  2017.11.06. 큰애기시장 배너 및 거처대 제작 15,206천원  2017.11.13. 중구수영장 카페 개보수 17,982천원  2017.11.15. 젊음의거리 배너 유지 보수 7,273천원  2018. 2.14. 구정 기본 및 역점사업 현황판 770천원</p> <p>등 총 24건 4,012,861천원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특혜 수주임</p>	<p>○ D업체와 용역발주 책임자의 유착관계 감사 권고함</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건의	<p>○공사내용의 부실</p> <p>- 리모델링 공사 금액 436,000천원에 못미치는 낮은 완성도, 공사대금의 흐름에 의혹이 나타남. 전문가 자문을 얻기 위해 인테리어업자 및 건축사에게 해당 건물을 보여줌. 2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음</p>	<p>○사유건물을 436,000천원에 리모델링했으나 소유주도 불만족, 이용자도 많지 않아 예산 낭비가 현저하므로 사업 타당성에 관해 감사 권고함</p>	

## 〈경로식당 운영〉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은 4곳의 경로식당에서 연간 1억 5,000여만원 이상이 결제되는 납품업체임에도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임</li> <li>- △△식품 등 3곳은 냉동탑차를 소유하지 않았고, 사무실과 창고 조차도 없는 카드단말기만을 갖춘 유령업체로, 특히 등록된 식품업체 사무실 주소지로 직접 방문한 결과, 식품업체는 없고 A업체 카센터, B업체 전기회사, C업체 건설업체, D업체 아파트였음</li> <li>- 경로식당 운영단체와 납품업체의 특수관계 : ●●경로식당은 운영단체의 전회장 소유의 식자재 업체로 모든 식자재 납품은 물론이고 전자제품인 튀김기계도 납품하는 등 수년간 독점 납품하였고, ■■경로식당은 납품업체가 운영단체의 회장과 친인척 관계로 간식을 제외한 모든 식자재를 독점 납품함</li> </ul>	<p>○경로식당 식자재 납품 업체를 개별 선정이 아닌 경로식당 전체 일괄 입찰 또는 공동구매 방식 등으로 변경 조치 바람</p> <p>○식자재 납품업체 관련 부실 운영단체 교체 및 경로식당 운영 방법 개선책을 마련하고, 식당 위생 상태 등 지도 점점 실시 바람</p>	
시정	<p>○경로식당 운영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자재 구매 거래명세표는 중구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식단표와 일치하나, 각 경로식당에서 실제 제공되는 식단과 불일치</li> </ul>	<p>○어르신들에게 맞는 식단표를 제공하여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p>○경로식당 회계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식당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와 허위영수증 첨부하였고, 또한 동일 정육점에서 카드결제일과 집행일자 불일치</li> <li>- ●●경로식당 등은 같은 업체에서 식자재가 동일한 물품(공산품), 임에도 물품 가격이 경로식당, 결제일자 별로 두배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li> <li>- 식단표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일부 품목 김치, 참기름, 고추장, 된장 등 중복 과다 구입하여 예산 낭비 발생</li> <li>- 모든 경로식당의 식자재 등 월말 결제 시 집행 잔액 없이 정확하게 1원 까지도 지출</li> <li>- ◆◆경로식당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80여명임에도 경로식당과 원거리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소량의 간식과 식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li> </ul> <p>또한 경로식당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갈비살을 구입</p>	<p>○정산회계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부정 지출액은 환수 조치 바람</p> <p>○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하기 바람</p>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식당의 회계 증빙서류 부실 : 카드지출이 아닌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만 첨부</li> <li>- ■■경로식당의 식자재 납품 거래명세표상의 업체명(○○종합유통)과 카드전표상의 업체명(□□종합유통)이 상이함</li> <li>- □□경로식당은 식자재를 주로 남구에서 구매하였고, 심지어 동구 소재 ○○마트에서 수시로 구매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금결제시 청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등 보완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증빙서류를 첨부 바람</li> </ul>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정산서류 관리 부실</li> <li>- 2014~2018년 보조금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를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으며, 보존기간이 남은 2014년, 2015년, 2016년 일부 정산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검사실시 후 정산결과보고서 제출</li> <li>○정산 미실시에 대한 감사 권고함</li> <li>○기록물관리 실태에 대한 담당부서 점검 후 결과 요청</li> </ul>	

##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호화별장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으로 잔디광장은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그 부대시설로 관리실을 설치하면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나 불법 호화별장으로 건축함</li> <li>- 관리실 내부에는 편백나무 인테리어의 큰방 1, 다락방 1, 침구류 세트, 세탁기, 실내가정용 화장실, 아일랜드식 주방, 난방용 보일러, 바닥난방, 북유럽풍의 벽난로, 40인치 TV, 고압냉장고, 와인냉장고 및 와인잔, 양주잔을 구비하고, 외부에는 대형 바비큐그릴을 구비하는 등 호화별장 형태의 시설물임</li> <li>-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정인의 사적인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된 공간으로 밖에 볼 수 없음</li> </ul> </li> <li>○ 전)구청장 지시로 부적정한 설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했던 조립식 관리실 공사중 박○○ 지구청장이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목구조의 호화별장 형태로 건축함</li> <li>- 연면적 70㎡ → 103.28㎡ 증가</li> <li>- 시설규모 약 47%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공사기간 23일 연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건축물로 조사된 바법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사업을 지시하여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낭비한 당시 행정 책임자인 박○○ 지구청장 및 관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를 권고함</li> <li>○ 구입과정이 불명확한 고가의 원목대형테이블 1개, 수제가죽의자 10개, 스탠드 조명 1개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여 구입과정을 명확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발견시 법적조치를 권고함</li> </ul>	

구분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의견	비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선정 부적정 잔디광장은 구민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을 막는 철문 및 출입금지봉 등을 설치하였으며, 일반인의 눈에 쉽게 띄지않는 입화산(다운동 5-2번지) 깊숙한 산속에 위치하고 있음</li> <li>○ 구입출처가 불명확한 고가의 물품 관리시설 내부 비품중 행정자치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물품 외 원목대형테이블 1, 수제가족의자 10개, 스탠드 조명 1개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입 과정이 불명확함</li> </ul>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조건 미이행 (예산 목적외 사용)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았으나, 잔디광장은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야영장 조성, 카라반 구입, 진입도로 포장 및 출입구 철문을 설치하는 등 예산 목적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심각하게 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목적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li> </ul>	

## 9. 행정사항

### 가. 중구의회

-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제214회 임시회 중)
-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집행기관 통보 (의결 후 3일이내)

### 나. 집행기관(중구청)

- 1)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

## 10. 참고자료

### 가. 조사위원 활동사진 【붙임 1】

### 나. 언론보도 【붙임 2】

**붙임 1.**

**조사위원 활동사진**



2018.12.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



2018.12.12.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의결



2018.12.14. 제1차 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2018.12.19. 제2차 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심의



2018.12.21.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



2019.1.8. 제3차 회의,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결



2019.2.14. 제5차 회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



2019.2.18. 위원간담회, 증인출석대상자  
변경 및  
조사방향 협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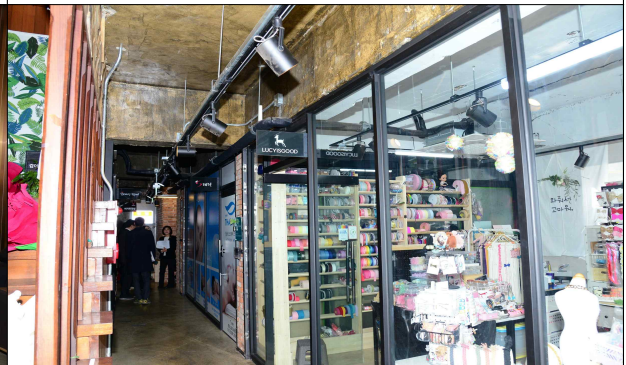
2019.2.25. 현장 확인,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1)



2019.2.25. 현장 확인,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2)



2019.2.25. 현장 확인, 문화의전당  
소리마루



2019.2.25. 현장 확인, 울산큰애기하우스



2019.2.25. 제8차 회의, 행정사무조사  
(문화의전당 물품구입, 유아숲 교육운영)



2019.2.26. 제9차 회의, 행정사무조사  
(울산마두희축제)



2019.2.27. 제10차 회의, 행정사무조사  
(학술융역,  
학성르네상스도시경관조성사업,  
울산큰애기상점가 및 구)학성여관)



2019.2.28. 제11차 회의, 행정사무조사  
(경로식당 운영,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 붙임 2.

## 언론보도

경상일보

2018년 12월 04일 화요일  
006면 사회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



신성봉 의장을 비롯한 울산 중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중구, 입화산 호화시설 행정특위 구성

특위구성 여야 이견 없지만  
세부안건 놓고 신경전 예고  
오늘 본회의서 특위구성 결정

최근 논란이 된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 호화 관리시설 의혹 및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논란(본보 11월27일 7면·28일 2면 보도 등) 등과 관련해 중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선다. 오는 12일 열리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위가 다룰 안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2017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사안들조차 한정된 시간과 부서 간 책임회피 등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며 “특위 구성을 통해 행감에서 제기된 ‘혈세낭비’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셀프 연구용역’ ‘공공기관 취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견에는 전체 중구의회 의원 11명 중 더불어민주당 6명만 참석했다. 나머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모두 불참했지만 특위 구성 및 참여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위가 다룰 안건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호화 관리시설 논란,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사항들은 전 집행부 시절 국비 공모를 통해 준공된 사업으로 야당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다. 반대로 야당이 박태완 청장의 공약인 고도제한 완화 문제나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진행되던 노인기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중단과 관련한 인사압박 논란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여당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검찰 고발이나, 일자리창출실 소관 상임위 배정 등의 문제로 여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특위 구성에서 잡음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중구의회 특위 구성안건은 4일 의원발의를 통해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해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호기자

## 울산광역시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003면 정치

## 울산 중구의회, 2018년 의사일정 마무리

##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내년 2월 말까지 9건 조사 활동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2018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박태완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감했다.

이날 본회의는 2018년 기정예산 3천 871억 9천 400만원보다 92억 7천 100만원이 증가한 3천 964억 6천 500만원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최종 의결했다. 또 지난 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비롯해 '울산

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는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김지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혜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문희성, 이명녀, 안영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오는 2월 28일까지 행사축제 예산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입화산 잔디광장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 21일 2018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관리시설 조성 및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모두 9건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성봉 의장은 "지난 33일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무술년 의사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가

올 2019년에도 어려운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한 해가 예고된 만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노세영 의원이 '중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정종식 기자

## 경상일보

2019년 02월 07일 목요일 005면 정치

##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본격화

### 호화별장 논란등 자료분석 오는 11일 출석대상자 선정 21~25일 현장조사등 나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구성된 '울산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근·이하 중구의회 특위)가 자료 조사를 마무리짓고 출석대상자 결정 및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중구의회 특위는 오는 1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대상자를 결정한 뒤, 21일부터 25일까지 3~4차례에 걸쳐 현

장조사 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중구의회 특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12월 말 구성된 후 한 달여 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호화별장 논란 등을 불러일으킨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마두회 축제 예산집행 내역 △경로식당 운영 현황(2014년~2018년) △문화의전당 물품구입 내역 및 관리대장 △학성 르네상스 도시경관조성사업 집행내역 △큰애기 상점가 공사 관련 서류 △오브제 파사드 사업 서류 △학술용역자료 등 특위는 총 10여건이 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분석을 마친 중구의회 특위는 오는 11일 출석대상자를 선정한 후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2월13~20일)을 끝낸 직후인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증인 신문 및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활동 시한인 2월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오는 3월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지근 특위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이 한 달여 기간 동안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가지며 진행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왔다"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 후 신문과정을 그동안 분석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랜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 울산신문

2019년 02월 07일 목요일  
007면 사회

##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본격활동

자료분석 끝내고 출석 대상 선정  
21일부터 증인 신문·현장 확인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중대한 의혹에 대한 규명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조사 및 현장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해 12월 말 구성된 직후 1월 한 달여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특위가 이번에 다룬 자료는 △마두회 축제 예산집행 내역 △경로식당 운영 현황(2014년~2018년) △문화의 전당 물품 구입 내역 및 관리대장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조성사업 집행내역 △큰애기 상점가 공사 관련 서류 △오브제 파사드 사업 서류 △학술용역자료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관련 서류 등 총 10여

건이 넘는다.

자료 분석을 마친 특위는 오는 11일 출석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끝낸 직후인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증인 신문 및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특위 활동 시한인 2월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오는 3월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이 한 달여 기간 동안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가지며 진행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왔다”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 후 신문과정을 그동안 분석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흥래기자 usjhr@

## 울산신문

2019년 02월 25일 월요일 006면 사회

## 중구의회, 입화산 별장 실체 밝혀내나

행감특위 28일까지 4일간 개최  
증인 50명 채택 의혹 집중 조사  
마두회 축제 등 10여건도 대상  
다음달 본회의서 보고서 채택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오는 28일까지 4일간 이뤄진다.

특위는 앞서 두 달여간 검토·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5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불러 입화산 호화 관리시설 등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파헤칠 계획이다.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현장 검증과 증인 조사 등 검증 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구성됐으며, 이후 활동 기간 대부분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데 보냈다.

특위가 이번에 다룬 자료는 △마두회 축제 예산집행 내역 △경로식당 운영 현황(2014년~2018년) △문화의 전당 물품 구입 내역 및 관리대장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조성사업 집행내역 △큰애기 상점가 공사 관련 서류 △오브제 파사드 사업 서류 △학술용역자료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관련 서류 등 총 10여건이 넘는다.

특위는 최근 관련 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인 출석대상자를 확정했다. 특위가 이번 조사에서 신청한 증인은 50명 가량이다.

특위는 호화 논란을 빚은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문화의전당 물품, 울산마

두회 축제 등에 대한 예산 집행과 용역 발주 내용 등을 각 사업 담당자 등에게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입화산 휴양림 잔디광장 관리건물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중구는 지난 2016말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명목으로 총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구 다운동 5·2번지 일원에 103㎡ 규모의 건물을 설치했다.

그런데 정작 입화산 관리인들은 해당 건물의 쓰임새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건물은 내부에 고급 수입 오디오와 가족 소파, 벽난로 등이 갖춰진 채 철문 등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위 공무원이나 인사들이 이 관리시설을 마치 별장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위는 28일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과 문화의전당, 울산큰애기 상점가 등에서 현장활동을 벌인다.

28일에는 울산마두회 축제, 27일에는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대해 조사한다.

활동 마지막날인 28일에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인다.

특위는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보고서 채택할 예정이다.

김지근 특위 위원장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부 내 구태를 차단하자는 의미로 특위 활동이 진행된다”며 “특위 위원들이 취합·분석한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흥래기자 usjhr@

울산제일일보

2019년 02월 25일 월요일 002면 종합

# 중구의회, 특위 활동 시작

## 28일까지 휴양림 호화 별장 등 각종 의혹 진위여부 규명

울산시 중구 입화산 참살이숲 자연휴양림 관리시설이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울산시 중구의회가 진위 여부를 조사한다.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부터 28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의혹을 풀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자료 요청을 하고 검토를 끝낸 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조사기간에 밝혀낼 예정이다.

특위는 호화 별장 논란으로 불거진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을 집중 규명한다. 25일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

이 건물은 관리시설인데도 고급 수입 오디오와 가죽 소파, 냉장고, 벽난로 등을 갖추고 있고 외부인 출입을 막는 철문이 설치돼 마치 개인 별장처럼 보여 의혹이 커졌다.

특위는 현장 조사 후 오는 28일께 증인을 출석시켜 내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밖에 문화의 전당 물품구입, 울산마두회 축제 예산 집행, 유아숲 체험원 조성과 유아숲 교육 운영, 학술용역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위는 28일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 징계 처분 요구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고려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지근 특위 위원장은 "행감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집행부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라며 "조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특위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의원들이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경상일보

2019년 02월 26일 화요일 005면 정치

# 중구 조사특위 “입화산 ‘호화별장’ 사용의혹 짚어”

미사용 시설 전기료등만 153만원  
상주직원 없는데 인터넷도 연결  
고급 시설 갖추고 외부인 통제  
중구 “시설점검때 쓴 흔적” 해명  
특위, 28일 증인 출석 집중 조사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울산 중구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규명해 나간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전부터 납부된 전기세 및 인터넷 비용 등의 흔적을 들어 고위공무원 등 특정인을 위한 ‘호화별장’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깊다며 철저한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25일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나왔다. 현장조사는 본격적인 증인 및 참고인 조사에 앞서 현장상황을 재확인하고, 조사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검토해 온 자료와 현장의 실제 대조 작업 등을 위해 마련됐다.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됐는데,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2018년 6월이 되어서야 등재됐다. 사실상 준공 후 지금까지 관리시설에 대한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이전에도



울산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울산 중구 입화산 관리시설을 방문해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관리시설 실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ibee99@kailbo.co.kr

누군가 시설물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인한 조사특위는 고위공무원 등 해당 시설물의 존재를 알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특정인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2018년 1월 3만 5000원을 시작으로 매달 11만~15만원 상당의 전기료와 TV사용료가 계속 납부됐다. 지난 한 해 중구가 납부한 전기세만 153만원 상당에 달한다.

관리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조사특위 위원들의 지적이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인터넷 사용비가 계속 나갔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상주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서 굳이 인터넷까지 연결해두고 매달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3만5000원 사이의 인터넷비용을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조사특위의

판단이다.

해당 관리시설은 시 특별교부금 6억원, 구비 5억원 등 총 11억원이 투입된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공공목적의 관리건축물이지만 복제 형태의 외관을 비롯해 내부에는 약 500만원이 넘는 벽난로와 고급 수입 오디오, 와인 냉장고, 고급 가죽시트 의자,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한 조사특위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이곳에 관리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실제로는 고급 내외장재를 갖춰놓고 수개월 간 주민 출입을 막았던 곳이다”며 “하지만 공공금 납부 부분이나, 앞서 현장 방문 당시 확인한 파비류장 불을 피운 흔적, 세면장에서 발견한 사용된 칫솔과 지약 등을 봤을 때 해당 시설에서 숙박 등의 사용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구는 이와 관련해 당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했는지, 물품 대장에 없는 비용은 누가 어떤 예산으로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시설 점검을 위해 사용한 흔적이라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특위는 호화별장 논란이 제기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문제 등에 대해 오는 28일 증인들을 의뢰해 출석시켜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구의회는 문화의 전당과 울산 연대기상점가 및 옛 학성여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증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은정기자

## 북유럽풍 벽난로에 와인냉장고... 관리비도 '꼬박 꼬박'

■중구의회 특위, 입화산 참살이숲 '공무원 호화별장' 논란 현장검증  
개발제한구역에 내 취사·난방기능 있는 '불법건축물' 확실히  
구경 "주민편의시설 이용할 계획" ... 특위 "주민 기만 행위"

고위공무원 '호화별장' 의혹이 불거진 울산 중구 참살이숲 자연휴양림 관리시설이 여전히 마중에 붙어있다. 사용은 '흔적'은 있지만 누가 사용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호화별장'의 출처를 낱알이 파헤쳐졌다며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한 중구의회도 어릴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호화별장』 불법건축물이 주민편의시설로?

25일 오전 참살이숲 자연휴양림 잔디광장을 따라 한창을 들어가자 등장한 한 건축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속박시설에 흡사한 모습이 펼쳐졌다. 아열대식 주방에 4도어 냉장고는 기본, 직화오븐에 와인냉장고까지 누가 봐도 관리시설은 아니었다. 40인치 텔레비전에는 유선 케이블도 완벽했고, 북유럽풍 벽난로에는 장작까지 구비돼 있었다. 심지어 벽난로 장식에는 '잘 좋은' 나무에서만 나온다는 '양'까지 있었다. 이날 이뤄진 현장조사에서는 누군가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 건축물은 지난 2017년 12월 완공된 후 2018년 6월에 되어서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이 관리비는 꼬박꼬박 측정됐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기세와 케이블 이용료는 매달 10만원 이상 나갔고, '여름 극성수기'인 8, 9월에는 평소보다 전기사용량이 3배 정도 많았다.

특위는 "관리비 외에도 지난해 현장조사 당시 서랍장, 양주 글라스, 초고 스피커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품목이 가득했다"며 "심지어 누군가 사용했던 컵들과 차약까지 구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 만들어진 이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란 것. 중구가 주장하는 '관리시설' 용도로 만들어졌다면, 취사·난방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구는 "불법 건축물이 절대 아니다"라며 "향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는 25일 고위공무원 '호화별장' 의혹이 불거진 울산 중구 참살이숲 자연 휴양림 관리시설 현장검증을 가졌다. 김성우 기자 [sukw201@um.co.kr](mailto:sukw201@um.co.kr)

중구 관계자는 "내부 시설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주민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 졌을 뿐"이라며 "불법건축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3월부터 산림속채널교실 참가자들을 위한 컴퓨터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는 "명백한 불법건축물인데도, 이를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본격 활동 시작한 특위... 여전히 '의혹투성'』

단초 중구의회는 '호화별장'의 진상을 밝혀냈다는 명목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이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고, 누가 사용했는지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특위 이에 대한 진실을 여전히 못 밝힌 상태다. 다만 '고위공무원 전용 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소문

만 무성히 퍼질 뿐이다.

이날 특위는 "고위공무원들이 드나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명확히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위 활동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고위공무원 호화별장, 유아숲교육운영 사업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 조사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조사특위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유아숲교육운영 사업과정에서 불거진 '전직 구의원 배우자에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집중 조망했다.

조사특위 김지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구청의 주요 사업과정에서 행정과 예산이 주민 눈높이에서 볼 때 얼마나 합당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잘못을 명확히 밝혀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z0110@um.co.kr](mailto:suz0110@um.co.kr)

※이 기사는 울산매일 인터넷방송 **Utv**를 통해 생방송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울산신문

## 마두회 축제 예산집행 부적절 조목조목 지적

중구의회 행정감사 특별위 조사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 성과 의문  
운영비 명목 공문서 위조 의혹도

본격 활동에 들어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마두회 축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특위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열린 마두회 축제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2015년 축제 추진위원회 들어 1,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련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출장을 갔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특위는 지난 2015년 축제 당시 마두회 소망들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 및 운영비 명목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에 따른 예산 유용 의혹도 제기했다.

재료구입비를 계좌 이체 후 다시 되돌

려 받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특위는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비교적 증빙의 투명성이 높은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계좌이체를 이용한 부분, 승인번호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사용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마두회 축제 직후 중구 원도심 일원 음식점 등 20여곳에서 하루 동안 5~10분 간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300여만원을 지출한 경위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구 측은 이를 축제

기간 발급한 식권 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위는 이날 마두회 축제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작업 등을 벌인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수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근 특위 위원장은 "마두회 축제는 구청의 보조금, 즉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그 어느 것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4년간 집행된 마두회 축제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 내역을 살펴볼 때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향후 축제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래기자 [u201@um.co.kr](mailto:u201@um.co.kr)

### 경상일보

## 중구의회, 마두회축제 예산집행 검증 돌입

행정사무감사 특위, 문제점 발견엔 한수조치 주문

울산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근·이하 조사특위)는 25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열

린 마두회 축제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조사특위는 중구청 관계공무원과

중구문화원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지난 2015년 축제추진위원회의 들어 1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출장을 간 일련 선진지 견학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2015년 축제 당시 마두회 소망들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 및 운영비 명목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

서 이를 계좌이체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등 공문서 위조에 따른 예산유용 의혹도 지적했다.

이밖에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증빙의 투명성이 높은 카드결제가 아닌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진 부분 등에 대한 문제점과 원도심 일원 음식점 등 20여곳에서 하루 동안 5~10분 간격

으로 신용카드로 300여만원 가량을 지출한 경위 등 투명성이 떨어진 예산집행에 대해 주문했다.

특위는 마두회 축제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재조사작업 등을 벌인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한수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종호기자 [kjh327@kailbo.co.kr](mailto:kjh327@kailbo.co.kr)

2019년 02월 27일 수요일 004면 정치

\*울산매일

2019년 02월 28일 목요일 001면 종합

# 중구 역사문화관광 연구용역 몰아주기·자료 무단전재 의혹

울산신문

2019년 02월 28일 목요일  
006면 사회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최근 6년간 연구용역 조사  
9건 특정연구진에 집중...2013년 울산시 감사때도 지적  
일부 용역, 이미 나온 자료 그대로 베끼고 결과물 부실  
연구진 "본인이 쓴 글 베낀 건 무단전재 아니"

울산 중구청이 최근 발주한 구  
도심의 역사 문화 관광지원에 대  
한 상당수 연구 용역이 특정 연  
구진에게 '몰아주기'가 이뤄졌  
고, 일부는 이미 나온 연구 자료  
를 무단으로 전재 하는 등 부실  
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  
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해 이뤄진 구도심 역사문화관  
광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  
에 올랐다.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원회는 27일 중구가 최근 6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 집중 조  
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특위는 원  
도심 활성화 및 상권 등 역사자원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의 문제점  
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중구가 최  
근 6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9  
건이 특정 연구진에게 집중됐고  
소요된 용역비만 4억2,500여만  
원에 달한다"며 "특히 이 연구진  
은 같은 기간 중구 외 타 지자체  
로부터도 18건의 연구용역을 추  
가로 수행하며 한해 평균 4.5건,

많은 경우 6~7건의 용역을 동시  
에 진행하며 결국 표절과 부실용  
역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  
고 질타했다.

실제 조사특위가 제시한 자료  
에 따르면, 해당 연구진은 지난  
2013년 실시된 '울산왜성종합정  
비 기본계획'의 보고서 38.5% 분  
량을 무단전재한 정황이 드러났  
다.

해당 연구진은 지난 2002년,  
2012년 각각 「서생포왜성 관광  
개발계획」, 「학성길에서 울산  
을 만나다」 등 학술용역을 진행  
했는데, 이 중에 '울산왜성', '일  
본성곽' 등 자료를 아무런 표기  
없이 무단 전재했다. 총 169페이  
지 중 65페이지가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최근에 발주한 '울산경상좌  
도병영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  
준안 작성' 학술용역(2017)에서  
도 무단 전재한 흔적이 발견됐  
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지정문  
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  
상변경허가 처리 기준안 작성  
(2008)」에서 총 5페이지가 무단  
전재됐다.

이 밖에도 '원도심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2013)'을  
비롯해 7건의 연구용역은 결과  
물이 부실하고 근거자료가 부족  
하다는 것이 중구의회 입장이다.  
이 같은 행위가 지난 2013년 울

산시 특정감사 때도 지적됐다.

당시 해당 연구진은 '중구 성  
정비활용계획 수립' 학술용역  
(2014)의 30% 분량을 무단 전  
재한 것이 밝혀져, 용역비 300여  
만원이 감액된 바 있다. 무단 전  
재된 자료는 「울산왜성종합정  
비 기본계획 학술용역(2013)」  
과 「학성길에서 울산을 만나다  
(2013)」로, 총 201페이지 중 60  
페이지가 아무런 표기 없이 무단  
전재됐다.

특정 연구진에게만 학술용역을  
몰아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특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중구는 '중구 성 정비 활용  
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대한 발  
주 공문을 총 3곳에 보냈는데, 이  
중에 2곳에만 특정 개인을 지목  
해 보낸 공문이 확인됐다.

조사특위 강혜경 의원은 "특  
정연구진을 지정해 수의계약 형  
태로 용역을 주는 등 특혜의혹  
이 있고 이에 따른 부실한 용역  
결과로 열세남비와 행정 불신만  
초래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연  
구용역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앞  
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얻  
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전체 사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은 셈"이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연구진 관계자  
는 "무단전재는 다른 사람의 글  
을 허락 없이 가져왔을 때 해당  
되는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쓴  
글을 그대로 베낀 것은 무단전재  
가 아니고, 단지 각주 등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편집과정에서 발  
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수지 기자 suz0611@usm.co.kr

## 중구 연구용역 부실 발주 표절 자초 근대기상점가 리모델링 특혜 의혹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문제 제기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회(이하 특위)는 27일 과거 중구청이 발  
주한 각종 연구용역들이 부실하게 진행  
된 점과 근대기상점가 조성사업이 잘못  
된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면서 특혜의  
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위는 최근 6년간(2012년~2017  
년) 진행된 원도심 활성화 및 상권 등 역  
사자원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의 문제점  
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중구가 최근 6년간 발  
주한 연구용역 중 9건이 특정연구진에  
게 집중됐고 소요된 용역비만 4억2,500  
여만원에 달한다"며 "이 연구진은 같은  
기간 중구 외 타 지자체로부터 18건의  
연구용역을 추가로 수행하며 한해 평균  
4.5건, 많은 경우 6~7건의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결국 표절과 부실용역으로 이  
어지는 단초가 됐다"고 질타했다.

# 수의계약으로 특정연구진 집중

특위에서 분석한 결과 해당 연구진은  
'울산왜성종합정비 기본계획(2013)'의  
보고서 38.5% 분량을 '서생포왜성 관광  
개발계획(2002)'과 '학성길에서 울산  
을 만나다(2013)'에서 무단 전재했다.

또 '중구 성 정비활용계획 수립' 학술  
용역(2014)에선 30% 분량을 '울산왜  
성종합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  
(2013)'과 '학성길에서 울산을 만나다  
(2013)'로부터 베꼈다.

'울산경상좌도병영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학술용역(2017)도 '국  
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  
상변경허가 처리 기준안 작성(2008)'에  
서 일부를 주저 없이 무단 전재한 것으

로 특위는 확인했다.

이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수  
립 학술연구용역(2013)'을 비롯해 7건  
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부실하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혜경 의원은 "특정연구진을 지정해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주는 등 특혜의  
혹이 있고 이에 따른 부실한 용역결과로  
열세남비와 행정 불신만 초래하게 됐  
다"며 "무엇보다 연구용역은 막대한 예  
산 투입에 앞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  
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전체 사업의 부실로 이어지  
는 악순환을 낳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 영타리심사·임차료 보존 협회 남비

이어 특위는 울산근대기상점가 리모델  
링 사업의 부실한 심사과정 등을 지적하고  
용역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중구는 당초 개인의 건물에 리모델링  
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위는 사업 입찰 과정에서 A업체가  
타 업체들보다 완성도가 현저히 낮은 설  
계도면을 제출했음에도, 오히려 원동환  
장수를 받아 선정됐다며 문제 삼았다.

또 근대기상점가 입점 점포가 없을 경  
우엔 중구청이 건물 소유주에게 임차료  
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한 결과, 앞으로 잔존 기간 동안 4억  
5,000만원 상당의 열세가 낭비될 것으로  
우려했다.

(구)학성여관 오브제퍼사드 사업의  
경우 사업에 적합한 건물도 아닌 곳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  
역변경에 따른 예산증액과 리모델링 공  
사의 분담률 등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용래기자 uah@

『울산매일』

2019년 03월 04일 월요일 008면 사회

## 중구의회 “불법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철거하라”

행정사무조사 특위 “법적 근거 부족하고 법원 등기 안돼 있어  
구민 형세 수역 들어 숙박 가능 호화시설 지어…탈·불법 운상”  
중구 “공공업무시설로 불법 건축물 야누…철거는 고려해야”  
경로식당 비위생적 식자재 납품·횡령 의혹 등 감사 청구카드

▷속보= 공무원 ‘호화별장’으로 논란  
(본지 2월 26일자 6면 보도)이었던 울산  
중구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대해  
중구의회가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원회는 지난달 28일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증언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면적 103㎡ 규모의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지난 2017  
년 12월 말 준공됐으나 건축물대장 등재  
가 6개월 가량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6월 초 등재 당시 건축물 용도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로 등록됐다.

하지만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제3조  
의5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  
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공업무시설  
은 배제된다고 함께 1,000㎡ 이상의 사  
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그 밖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  
에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잔디광  
장 관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공공업무로 활용되지 않는 관리시  
설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중구의회  
입장이다.

실제 현장조사에서도 해당 건축물  
은 관리시설로 보기 힘든 복유점 박

난토와 아일랜드식 주방을 비롯해 4도  
어 냉장고, 자화오븐, 와인냉장고, 40인  
치 TV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사위원들은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고 불법 등  
기에도 등재되지 않아 용도 자체도 불  
분명한 불법건축물로 규정할 수 있다”  
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해당 지역에는 바닥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고 통신 및 전기시설과 정  
화조 등의 일체시설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법률상 설치가 가능한 것은  
20㎡이하의 농막밖에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들은 “준법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이 오히려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수역 원의 예산을 들여 숙박  
까지 가능한 불법 호화시설을 짓고 준  
공된 지 반년이 넘도록 건축대장에 등  
재도 시키지 않은 점, 법원 등기에도 올  
리지 않은 점, 준공여부 무늬의 사용된

문적 등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탈·불법의 운상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구청에 현재 지  
어진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의 철거  
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공공업무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철거는 고려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어남 특별위원회는 관내 저소득 어  
르신들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정에서 비위  
생적인 식자재가 납품된 경위와 사무실  
없이 운영되는 식자재 납품업체, 일부  
경로식당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도 진행했다.

위원들은 “식자재 납품업체 중 A업체  
는 연 소재자에 공장이 들어서 있고 B업  
체 소재자에는 차량정비소가 영업 중”  
이라며 “C업체는 현재 사무실을 마련하  
고 있는 중이라 지금까지 상태가 모호  
한 업체들이 식자재를 납품해 온 것”이  
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D업체의 경우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곳에서 비위생적인 식자재  
를 납품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들에게 재공해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경로식당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경우 구입 목록과 실제 납품량이 일치  
하지 않았고 김치와 공산품 중핵 구매  
등을 통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  
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중구  
청에는 정산검사서류가 없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특위  
는 파악했다.

조사특위는 불법이 드러난 사안에 대  
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사  
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등  
해결로 갔다.  
여수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제213회 중구의회 입  
시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soz001@hanmail.net

『울산매일』

2019년 03월 04일 월요일 005면 사회

중구의회 조사특위 “공공업무시설 아니다”

## 입화산 관리시설 철거 요구

호화별장 논란이 불거진 입화산 잔디  
광장 관리시설이 철거될 전망이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  
난달 28일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조  
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 증인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위 조사결과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  
시설은 2017년 12월 20일 준공됐는데  
건축물대장 등재가 6개월 가량 지연된 것  
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6월 5일 등록 당시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들은 잔디광장 관리시설이

공공업무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호화 별장을 의심해 하는 시설들이 즐  
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업무시설로 등재된 이 건  
축물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며 철  
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조사 결  
과를 정리해 불법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서는 관계자 감사원 감사청구, 사법기관  
고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구의회 특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제  
21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과보  
고서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울산매일』

2019년 03월 04일 월요일 018면 오피니언

## 울산 중구 부실한 학술용역 전수조사 필요

각급 행정기관의 연구 용역 발주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 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  
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  
한 방법이다. 하지만 용역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 계획 자체  
가 부실하게 된다.

지난주 중구의회 회의 행정감사에서는 중구  
청이 최근 실시한 역사문화관광 관련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구  
가 최근 6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9건이 특  
정 연구진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특정 연구진은 같은 기간 중구 외 타 지자체  
로부터 18건의 연구용역을 추가로 수행하며  
한해 평균 4.5건, 많은 경우 6~7건의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결국 표절과 부실용역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고 질타했다.

중구의회는 해당 연구진의 무단전제 의혹  
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진은 지난  
2013년 실시된 ‘울산외곽성종합정비 기본계획’  
의 보고서 38.5% 분량을 무단전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지난 2002년, 2012년 각각  
『서생포역성 관개개발계획』, 『학성길에  
서 울산을 만나다』 등 학술용역을 진행했는  
데, 이 중에 ‘울산외곽’, ‘일본성곽’ 등 자료를  
아무런 표기 없이 무단전제했다. 총 169페이지

중 65페이지가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  
었다는 것이다. 또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2013)을 비롯해 7건의 연  
구용역은 결과물이 부실하고 근거자료가 부  
족하다는 것이 중구의회 주장이다.

해당 연구진은 “본인이 쓴 글을 그대로 베  
간 것은 무단전제가 아니고, 단지 각주 등 표  
기를 하지 않은 것은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해명  
은 사리에 맞지 않다. 설사 자기 연구물을 인  
용하더라도 각주 등을 통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다. ‘표절’을 실수로 넘어가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부실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제  
대로 수행될 리 없다. 중구 구도심의 역사 문  
화 관광은 울산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잘못된 용  
역 결과가 그대로 사업에 반영된다면 이는  
울산의 역사가 왜곡된 채로 후손에게 전달되  
는 것이다. 반드시 부실하게 이뤄진 학술용  
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조치  
가 이뤄져야 하겠다. 이는 비단 중구만의 문  
제가 아닐 듯하다.

용역연구 발주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  
치도록 하고,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검  
증시스템도 갖춰야 하겠다.